록펠러의 독점에 맞선 환원운동가, 토머스 W. 필립스(T.W. Phillips)의 신앙과 투쟁

[본문]

미국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 역사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의 헌신은 빼놓을 수 없는 영적 자산입니다. 그중에서도 **토머스 W. 필립스(Thomas W. Phillips, 1835~1912)**는 존 D. 록펠러의 거대 자본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Co.)의 무자비한 기업 사냥과 독점 공세에 맞서 교회의 독립성과 시장의 정의를 지켜낸 불굴의 기업인이자, 그리스도의 교회(Disciples of Christ)의 위대한 자선가였습니다.

그의 신앙적 여정과 그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여 나눕니다.

---

1. 록펠러의 기업 사냥과 필립스의 저항



1860 년대 펜실베이니아 석유 붐 초기에 '필립스 브라더스(Phillips Brothers)'를 설립한 그는 촉망받는 석유 개척자였습니다. 그러나 1870 년대 존 D.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철도 회사들과 비밀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경쟁사들의 운송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유 업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독립 석유 업자들이 고사하며 회사를 헐값에 넘겨야 했던 '기업 사냥'의 시대에, 필립스는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독립 석유 연합 운동의 핵심 리더로 활약했습니다.

- **퓨어 오일(Pure Oil Co.) 설립:** 록펠러가 파이프라인과 철도 송유관을 독점하자, 필립스는 다른 독립 업자들과 힘을 합쳐 스탠더드 오일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 파이프라인과 정유 네트워크인 **'퓨어 오일 컴퍼니'**를 결성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 **반독점 입법 활동:** 이후 그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되어, 록펠러 같은 거대 독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 산업위원회(Industrial Commission) 설치를 주도하는 등 법적·정치적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 1904 년 **T.W. 필립스 가스 앤 오일(T.W. Phillips Gas and Oil Company)**을 세우고 독자적인 기업 자산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2. 그리스도의 교회(Disciples of Christ)를 위한 위대한 헌신

필립스는 록펠러의 위협 속에서 일궈낸 막대한 부를 자신의 영적 고향인 교단과 기독교 교육에 아낌없이 환원했습니다.

- **기독교 저널 창간:** 1865년 12월, 필립스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 1820-1888), 제임스 가필드(James Abram Garfield, 1831-1881)와 함께 새로운 주간지의 발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의 첫 호가 1866년 4월 7일 발행되었으며, 이 잡지는 환원운동의 사상을 널리 전하는 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 **대학 설립 및 재정 지원:** 교단 소속 대학인 베다니 대학(Bethany College), 하이럼 대학(Hiram College), 드레이크 대학(Drake College) 등을 후원했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주에 **필립스 대학교(Phillips University)**와 필립스 성서연구소(Phillips Bible Institute)를 세워 목회자 양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 **기독교 저술 활동:** 1905 년에는 자신의 확고한 신앙관을 담은 저서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

3. T.W. Phillips Gas and Oil Co.의 이후 역사와 유산

1912 년 토머스 필립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업은 대를 이어 번창했습니다.

- **100 년 기업으로의 성장:** 그의 아들인 토머스 W. 필립스 주니어(Thomas W. Phillips Jr.)가 가업을 이어받아 무려 44 년 동안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아들 역시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며 사업과 정치를 병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장 오래되고 탄탄한 유틸리티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거대 에너지 그룹으로의 통합 (2010 년대):** 설립 후 100 년이 지난 2011 년,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기업인 **엑손모빌(ExxonMobil)**이 마르셀루스 셰일 가스전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립스 가문의 가스 생산 부문을 16 억 9 천만 달러(약 2 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주민 가스 공급 네트워크 부문은 현재 미국의 대형 유틸리티 기업인 **피플스 가스(Peoples Gas)**의 일부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에게 남겨진 신앙의 교훈

독점 자본의 압박 속에서 필립스가 믿음과 정의로 지켜낸 기업은 100 년 넘게 살아남아 지역 사회에 공헌했고, 오늘날 거대 에너지 인프라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눈물과 기도로 심은 재정적 씨앗은 필립스 대학교와

수많은 기독교 매체를 통해 수많은 환원운동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물질적 압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비전을 향해 달렸던 토머스 W. 필립스의 삶은 오늘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토머스 **W.** 필립스 주니어**(Thomas W. Phillips Jr.)** 역시 아버지를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Disciples of Christ)**에 신실하게 출석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출석을 넘어 아버지의 신앙과 자선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활동했습니다. 필립스 주니어의 종교적 삶과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의 독실한 신자:**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위치한 **노스 스트리트 그리스도의 교회(North Street Church of Christ)**의 등록 교인이었으며, 평생을 이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56 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의 평소 뜻에 따라 이 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 **아버지의 신앙 기념관 건립 주도:** 1954 년, 필립스 주니어는 남동생(벤자민)과 함께 교단 역사 학학회인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협회(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에 아버지의 믿음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가문의 막대한 재정을 기부하여 1958 년 테네시주 내슈빌에 **'토머스 W. 필립스 기념관(Thomas W. Phillips Memorial)'** 건물을 성공적으로 완공시켰습니다. (이 건물은 교단 역사 자료를 보존하는 핵심 아카이브로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 **기독교 대학 후원 승계:** 아버지가 세우거나 후원했던 베다니 대학(Bethany College) 등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 소속 학원들에 지속적으로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내인 그레타(Greta)는 베다니 대학의 교수(음악과 선임 강사)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립스 주니어는 아버지가 일군 가업(T.W. Phillips Gas and Oil Co.)을 이어받아 경영했을 뿐만 아니라, **스톤-캠벨 전통(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 뿌리)의 신앙 유산까지 훌륭하게 상속받아 평생을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1. 필립스 가문의 영적 고향, 노스 스트리트 교회 (North Street Christian Church)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Butler)에 위치한 노스 스트리트 교회는 필립스 가문이 평생 예배를 드리고, 가문의 영욕을 함께한 신앙의 요람이었습니다.

- **스톤-캠벨 환원운동의 유산:** 이 교회는 인간이 만든 복잡한 교리를 거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신약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자"고 외친 **스톤-캠벨 환원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필립스 가문은 이 소박하고 강력한 복음주의 신앙에 매료되어 교회를 섬겼습니다.
- **가문과 교회의 깊은 유대:** 2 대 경영자였던 필립스 주니어는 물론이고, 가문의 아이들은 모두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랐습니다. 가문의 어른인 필립스 주니어의 아내(그레타 여사)는 직접 이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지역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거대한 석유·가스 재벌 가문의 안주인이 교회에서 다정하게 성경을 가르쳐주던 모습을 평생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 **삶의 마지막을 보낸 곳:** 1956 년 1 월, 필립스 주니어가 자신의 저택인 '필립스 홀'에서 별세했을 때 그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진 곳도 바로 이 노스 스트리트 교회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에도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지역에서 복음을 수호하는 살아있는 역사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환원운동 역사 보존의 성지, 토머스 W. 필립스 기념관 (Thomas W. Phillips Memorial)

필립스 주니어와 그의 남동생 벤자민은 1954 년, 평생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자선 활동을 펼치다 간 **아버지의 신앙을 영원히 기념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테네시주 내슈빌에 세워진 **'토머스 W. 필립스 기념관'**입니다.

- **역사 자료를 지키는 요새:** 이 기념관은 단순히 아버지를 기리는 동상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협회(DCHS)'의 본부이자 아카이브(역사 박물관 및 문서고)**로 건립되었습니다. 필립스 가문은 거액의 건축 기금을 쾌척했고, 건물은 1958 년에 완공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건축과 국가 문화재 지정:** 이 건물은 중세 유럽의 성을 연상시키는 **후기 고딕 리바이벌(Late Gothic Revival) 양식의 석조 외벽**과 성경의 역사를 담은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으로 지어져 건축학적으로도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6 년에는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 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등록되었습니다.
- **수십만 점의 신앙 유산 보존:** 이곳에는 환원운동의 창시자들(알렉산더 캠벨 등)이 직접 쓴 희귀 성경, 일기장, 서한, 사진 등 **수십만 점의 기독교 역사 유물과 문서들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수많은 학자와 목회자들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 **오늘날의 변화:** 세월이 흘러 2015년, 역사협회는 관리 비용 절감과 아카이브의 현대화(디지털화)를 위해 이 기념관 건물을 인근의 명문 대학교인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 매각했습니다. 대신 역사협회 본부와 소장품들은 환원운동의 고향이자 영적 뿌리가 깊은 서버지니아주의 베다니(Bethany)로 자리를 옮겨, 오늘날에도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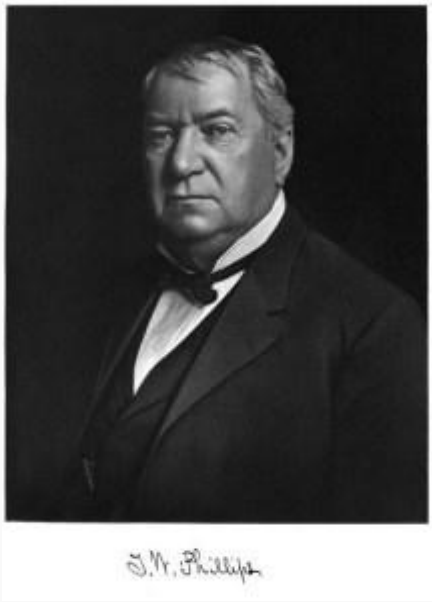
- 노스 스트리트 교회는 필립스 가문이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재벌이라는 특권 의식 없이 이웃들과 소박하게 성경을 배우며 신앙을 키워나간 **'영적 뿌리'**였습니다.
- 토머스 **W.** 필립스 기념관은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미국 환원운동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전 세계의 기독교 유산을 지켜낸 **'위대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록펠러와의 싸움)에서도, 정치(하원의원)에서도,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갔던 이 가문의 이야기는 100 년이 지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토머스 W. 필립스 (1835-1912)

2013 년 2 월 27 일

존 울프 조던의 저서 《서부 펜실베이니아의 계보 및 개인사》 3 권, 루이스 역사 출판사, 1915 년, 1624-1638 쪽에서 발췌 .



토마스 W. 필립스

토머스 W. 필립스는 에프라임과 앤(뉴턴) 필립스의 아들로 1835 년 2 월 23 일 펜실베이니아주 로렌스 카운티에서 태어나 1912 년 7 월 21 일 펜실베이니아주 뉴캐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는데, 이는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덟 자녀를 키우고 빚에 허덕이는 농장을 운영해야 했던 홀어머니는 아들들의 교육과 학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토머스 W. 필립스는 많은 이들이 누리는 교육적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으로 동료들을 이끌었던 가문의 후손으로서 그는 배움에 대한 적성과 열망을 물려받았고, 지역 학교와 개인 교습을 통해 얻은 교육 외에도 부지런한 독학으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행운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기에, 그는 그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부지런하고 끈질기게 학업에 매진하여 학생에서 학자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타고난 안목은 훌륭했고, 비록 그의 학업은 상당 부분 자율적이었지만, 그의 선택은 놀라울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역사, 전기, 과학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마운트 잭슨 문학회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으며, 그 단체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토론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날카로운 추론 능력과 독창적인 논술로 학회 최고의 연설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초기 목표는 기독교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지만, 폐 질환으로 인해

야외에서 일해야 했기에 그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설교를 했고, 죽을 때까지 진정한 의미의 복음 사역자로 남았습니다.


드레이크 웰, 오일 시티, 펜실베이니아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젊은 시절 성경 연구가 그의 진로 선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욥기에는 "반석에서 기름 강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859 년 드레이크가 펜실베이니아 서부에서 석유를 발견하자 호기심에 이끌려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산업에 강하게 매료된 그는 1861 년 형제들과 함께 석유 사업을 시작했고, 아이작, 존, 찰스, 토마스 W.로 구성된 필립스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 고난과 좌절을 겪으며 마침내 승리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에 매진했고, 죽을 때까지 업계에 몸담으며 석유 산업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TW 필립스 가스앤오일 컴퍼니 주식

새 회사는 곧바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몇 년 만에 석유 생산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가치는 수십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부를 누리던 시절 형제들이 택한 행보는 그들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인류애와 강자가 약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르쳐준 부모의 가르침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교회 건축, 대학 기금 마련, 교사 급여 지급, 자선 단체 설립 등에 투자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고귀한 행보였습니다. 번영의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은 제이 쿡 공황에 휩싸였고, 동시에 막대한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면서 석유 가격은 배럴당 4 달러 55 센트에서 65 센트로 폭락했습니다. 재정 파탄의 쓰나미가 가라앉았을 때, 필립스 형제 회사는 50 만 달러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부채를 구성하는 청구 중 상당수는 성격이 너무 불확실하여 어떤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며, 나머지는 달러당 매우 낮은 이자율로 상환할 수 있었겠지만, 토마스 W. 필립스는 그러한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TW 필립스 빌딩, 버틀러, 펜실베이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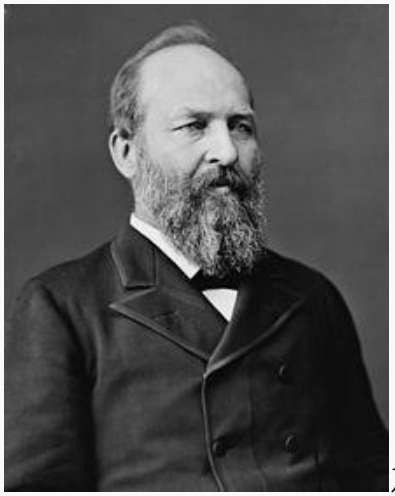
그는 14 년 동안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이자를 포함해 80 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과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는 확고한 양심과 불굴의 용기, 흠잡을 데 없는 명예, 그리고 어떤 길이든 나타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이끌려 이 일을 해냈습니다. 수많은 채권자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도 전에 그의 장남 아이작이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필립스 씨는 석유 업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재건했습니다. 1896 년에 그는 필립스 가스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1904 년에 TW 필립스 가스 및 석유 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합자회사인 TW 필립스, 선즈 앤 컴퍼니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 외에도 버틀러의 홈 천연가스 회사, 프리포트의 엔터프라이즈 천연가스 회사, 펑크서토니의 마호닝 및 시티즌스 천연가스 회사의 모든 주식을 매입하여 합병했습니다.

T.W. PHILLIPS GAS AND OIL CO. SERVING PEOPLE SINCE 1896
TW 필립스 가스 및 석유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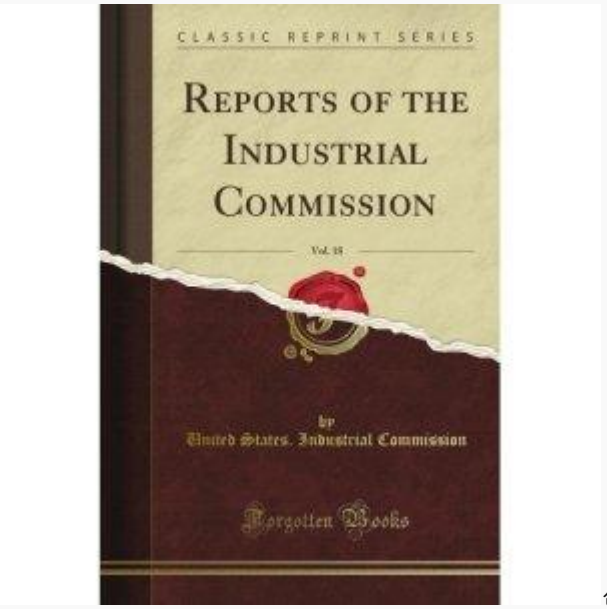
펜실베이니아 석유 산업이 토머스 W. 필립스만큼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는 석유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에 앞장섰습니다. 1866 년에는 배럴당 1 달러의 직접 석유세를 폐지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으며, 1879 년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에서 제안된 유정 시추 장비에 대한 1,000 달러의 직접세 또는 배럴당 10 센트의 대체세에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치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생산량 제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유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보호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자신의 사업을 축소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TW 필립스의 워싱턴 DC 자택

그의 정치 경력은 눈부셨고 그 영향력은 광범위했습니다. 그는 1880 년에 처음으로 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가필드 장군은 아마도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을 것이며, 가필드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필립스는 사업을 접고 선거 운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그 선거 운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공화당 교재를 구상하고 기획했으며, 출판을 도왔습니다. 이 교재는 최초의 선거 운동 교재였으며, 이후 양당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 주에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와 가필드 장군을 위해 당을 조직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에서는 그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되고 투표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필드 행정부에 우호적인 상원의원의 당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1890 년 그는 하원의원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공화당 후보가 두 명이나 출마한 탓에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1892 년 그는 상당한 표차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1894 년에는 펜실베이니아 제 25 선거구에서 역대 최다인 약 12,000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그는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를 계획했습니다. 당시 노동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53 대 의회에 초당파적인 산업위원회를 설립하는 중요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그 법안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라고 여겨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강력하고 악명 높은 상원 의원 파벌의 수장은 필립스 의원에게 신입 의원인 그가 그처럼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며, 여러 임기를 거친 의원들은 중요하거나 영향력이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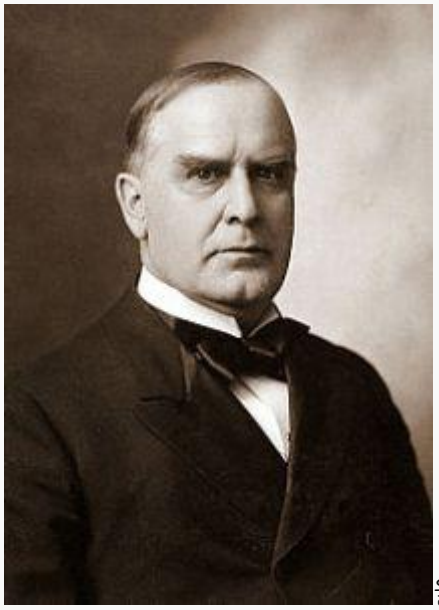
산업위원회

필립스 의원은 제 54 대 의회에서 다시 법안을 제출했고, 마지막 회기 종료 직전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법안의 조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후임 대통령이 채워야 할 중요한 직책들을 만들 것이라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필립스 의원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법안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기에 이를 최종적인 패배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더 이상 의원직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원과 상원에 많은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두고 있었고, 노동조합 등을 통해 자신의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함께 의원직을 수행했던 인물에게 세 번째로 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통과 역시 상당 부분 그의 영향력과 개인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는 1898 년 6 월 18 일에 승인된 위원회 설립 법안의 첫 세 단락을 인용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미합중국 상원과 하원이 합동으로 결의한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다. 산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상원 의장이 임명하는 상원 의원 5 명,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5 명, 그리고 각 산업 및 고용 분야를 공정하게 대표하는 9 명의 위원을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2 조. 이 위원회는 이민, 노동, 농업, 제조업 및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하며 이러한 주제에 관해 의회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는 임무를 가진다.

제 3 조. 본 기구는 연방의 각 주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 노동자, 고용주,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통일된 입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을 제안해야 한다.

윌리엄 맥킨리

맥킨리 대통령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필립스 씨를 임명했고, 그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대부분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보낸 4 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되고, 헌신적인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위원회가 설립 목적에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위원회를 향락을 위한 위원회로 만들려는 세력에 성공적으로 맞섰습니다. 필립스 씨는 자신이 맡은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헌법 분야의 저명한 권위자에게 자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용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원받았습니다. 거대 독점 기업들과 특권층의 사악하고 강력한 영향력은 그의 임무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고,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위원회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착수한 사업이나 다른 누군가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안녕과 존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으며, 계급과 대중 사이의 격차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우리 공화국은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 참조]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19 권으로 출판되었으며, 주 및 연방 법률 제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된 귀중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필립스 씨는 자신이 참여한 위원회 보고서 외에도 보고서 19 권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출판했는데, 이 보고서는 위원회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권고에 따라 기업국과 미국 상무부 및 노동부가 설립되었으며, 이 두 기관은 정부의 강력하고 필수적인 부서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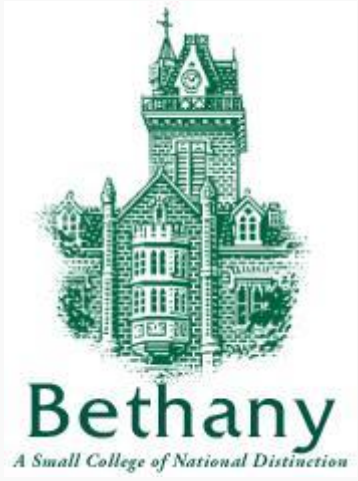

토마스 W. 필립스

우리 정부 수립 이후 건설적인 입법 활동에 있어 필립스 씨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4 년, 산업위원회에서 4 년을 재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내 노동자, 농부, 자영업자 중 필립스 씨에게 어느 정도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시작한 움직임은 앞으로 세월이 흐르고,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더욱 중요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관심사와 활동들을 보면 필립스 씨는 마땅히 져야 할 몫 이상의 책임을 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고 진심으로 헌신했던 자선 교육 및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원동력이었으며, 그의 현명하고 자비로운 자선 활동이 발휘된 경로는 너무나 다양해서 그의 삶 전체를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는 말과 글, 지성과 에너지, 그리고 재정을 동원하여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물질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뉴캐슬 제일기독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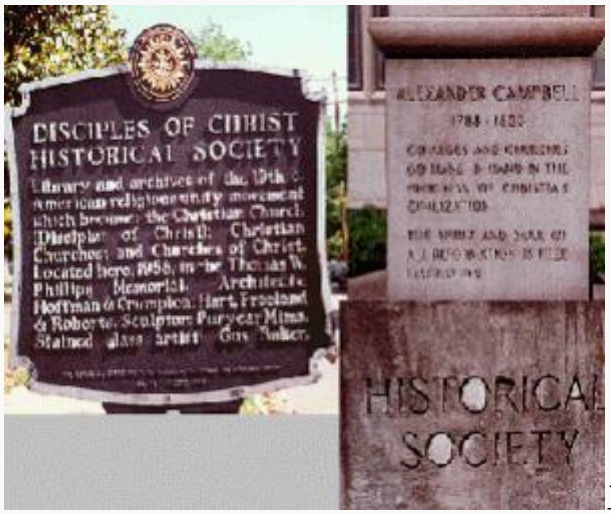
그는 형제들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 뉴캐슬에 제일기독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아무런 부담 없이 신탁 관리인들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는 재정적 지원과 봉사를 아낌없이 제공하여 YMCA 와 YWCA 의 주 및 전국적인 활동을 크게 도왔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지원으로 베다니, 드레이크, 히람 대학과 오리건주 유진 성경대학에서 목회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많은 기부를 한 수많은 대학과 학교 중에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 대학이 있는데, 그는 이곳에 여학생들을 위한 필립스 홀을 건립했습니다. 그의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다면 이 대학은 아마도 한 세대 전에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베다니 대학, 웨스트버지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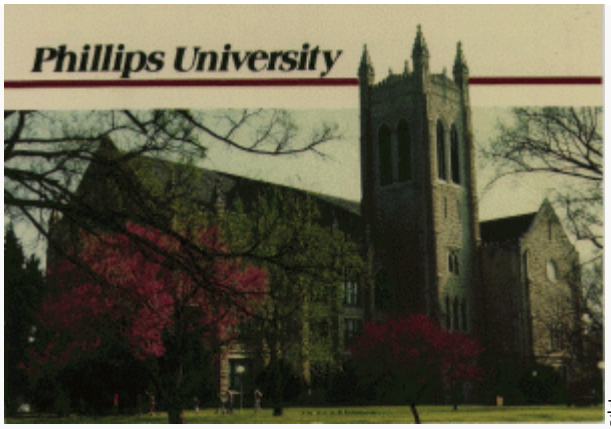
그는 베다니, 히람, 드레이크, 크리스천 필립스, 유진에 목회자 대출 기금을 설립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전파하고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기금이 없었다면 그들은 고귀한 포부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교회의 해외,

미국, 주, 지방 교회 확장, 목회자 구제 및 자선 단체들을 특별히 후원했습니다. 고향인 오하이오 주에서의 국내 선교 사업에 그는 든든한 후원자였으며, 북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윌리엄 F. 카우든 선교사를 지원했고, 오클라호마 준주가 주로 승격되었을 때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들을 도왔습니다. 필립스 씨는 오하이오주 히람에 있는 히람 대학의 전 총장이자 훌륭한 기독교적 인품과 품성을 지닌 EV 졸라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새로운 땅으로 가서 학교를 설립한다면, 제가 그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졸라스 총장의 노력과 필립스 씨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오클라호마주 에니드에 오클라호마 기독교 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필립스 씨가 사망한 직후, 이사회는 학교 이름을 필립스 대학교로 변경하여 대학 설립자의 업적을 기리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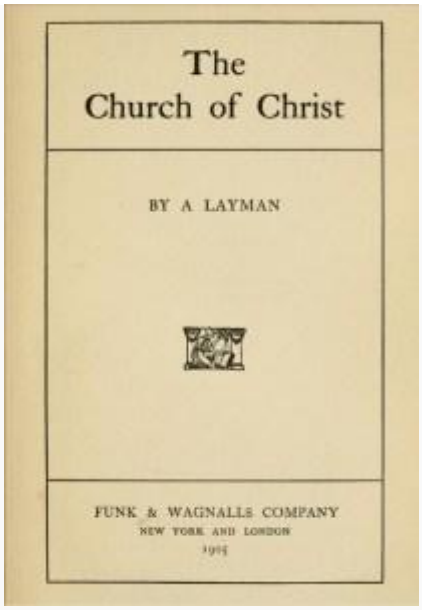
필립스 씨는 평생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동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의 모든 계획은 깊은 기도와 묵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생애 말년에 그는 교육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이러한 확신에 따라 오하이오주 캔턴에 필립스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소망을 실현했습니다. 이 학교는 실질적인 교육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설립자가 다채롭고 축복받은 삶을 마감한 지 두 달 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필립스 씨는 이 학교가 자신의 모든 사역 중 가장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필립스 대학교, 오클라호마주 에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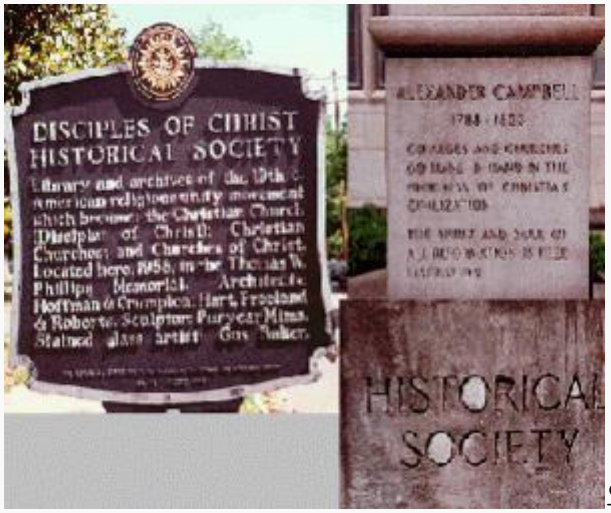
필립스 씨는 평생 동안 당대의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선구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통념보다 훨씬 앞서 나가 거의 선구자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기업 윤리, 사회 정의, 그리고 종교적 교리는 그의 삶을 항상 이끌고 지배했던 원칙들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그의 입장은 대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했는데, 이는 그가 문제를 철저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능력을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 어떤 법적 권리도 도덕적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강도 행위는 절도만큼이나 비열하고 훨씬 더 비겁한 행위였습니다. 그에게 문명이란 인간 사회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고 배려심 있게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현 시대를 문명화된 시대라기보다는 야만적인 시대로 여겼습니다. 그는 종교 단체와 교육 기관이 최소한 대중의 정서가 정당에 강요하는 정책에 발맞춰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대정신과 기독교 정신 모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재정적 또는 기타 긴급 상황도 임원이나 이사회가 신뢰를 저버리고 원칙을 위반하거나 가장 엄격한 정직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머스 W. 필립스는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성공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목표 달성에 하루가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그는 종종 "다음에는 다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와 노인, 가까이 사는 사람과 멀리 사는 사람, 현재 살아있는 사람과 미래 세대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부금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줄" 곳에 쓰이도록 노력했습니다. 분명 그의 삶은 유익한 봉사로 가득했고, 흠잡을 데 없는 청렴함으로 빛났으며, 매우 가치 있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젊은 시절부터 갈고 닦은 학문적 자질은 1905 년 6 월 펑크 앤 와그널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평신도”라는 필명으로 출간하여 독자들이 편견 없이 읽고 그 내용만을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바랐습니다. “평신도의 그리스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총 14 판, 52,000 부 이상 출간되었고, 저자 사후 그의 가족이 저작권과 인쇄판을 구입하여 재출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로 번역되었고, 현재(1915 년) 러시아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매우 다양한 편집자, 교수, 선교사, 성직자들로부터 수백 건의 찬사가 쏟아졌는데, 이는 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말씀에 담긴 명확하고 분명한 진술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주제를 다루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의사

토마스 W. 필립스는 젊은 시절, 그리고 그가 직접 표현한 대로 "깡충깡충 뛰고, 걷고, 건너뛰고, 또 건너뛰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현대적인 혁신이 유행하기 훨씬 전에, 성경학교에서 신약성경 전체를 두 번에 걸쳐 가르쳤습니다. 이 강의 동안 그는 방대한 양의 노트를 작성했고, 소년 시절이나 아주 젊은 시절에 설교했던 몇몇 설교 원고와 함께 보관해 두었습니다. 정계와 사업에서 대부분 은퇴한 후, 그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옛 노트와 원고를 모아 이 획기적인 저서를 집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1905 년 2 월 23 일, 그의 70 번째 생일에 그는 막 완성한 원고를 가지고 출판을 준비했습니다. 그 후 그는 "주기도문"과 "성찬식"이라는 두 편의 글을 작성하여 발표했는데, 이 글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새 판에 재수록될 예정입니다. 그는 "부활"에 관한 글을 준비하던 중 마지막 병에 걸렸습니다.

토마스 W. 필립스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으므로 더 이상의 추도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1912 년 7 월 21 일 펜실베이니아주 뉴캐슬에서 이 세상을 떠나, 충실한 종으로서 주님 곁으로 갔으며,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안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W. 필립스는 1862 년에 데이비드 W.와 낸시 레베카(아터) 하드먼의 딸인 클라린다와 첫 번째 결혼을 했으며, 클라린다는 1866 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1870 년에 첫 번째 아내의 여동생인 팜필라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의 자녀: 허버트 C.(1864 년 출생, 1912 년 사망), 노먼 A.(1865 년 출생, 1903 년 사망).

두 번째 결혼에서의 자녀: 빅터 K.(1872 년 출생, 1901 년 사망), 토마스 W. 주니어(후술), 클라린다 그레이스(1877 년 출생), 벤자민 드와이트(1885 년 출생).